

아프리카-아시아 농촌빈곤 극복 우수사례 발표 국제워크숍 참석 출장복명서

- ☐ 출장명: 아프리카-아시아 농촌빈곤 극복 우수사례 발표 국제워크숍 참석
- ☐ 출장기간: 2008. 5. 24~6.1 (6박 9일)
- ☐ 출장장소: 이집트 카이로
- ☐ 출장복명자: 김경덕 연구위원
- ☐ 출장형식: AARDO(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 초청
- ☐ 출장목적: 농촌빈곤 극복의 성공사례 및 모델에 관한 정보를 AARDO 회원
국간 공유하고, 향후 농촌빈곤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
탐구와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참석자

- 이집트: 사회복지부 장관, 사회복지부 장관자문관(국제농촌개발 담당으로
전 대사), 전국제농업협력국장, 국제농업협력국 담당 직원, 카이로대 교
수 등
- AARDO: Dr. Sangjeeb K. Bbehera(AARDO 담당 책임자) 외 1인
- 참가국 및 참가인원: 16개국 30명(주최국인 이집트를 제외할 경우 15개
국 18명임)
 - 참가국 명단: 방갈라데시 2명, 대만, 가나, 인도 2명, 요르단, 대한민국
2명,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 필리핀, 수단, 시리
아, 잠비아
 - 이집트: Dr. Ahemd Abouil Kheir 외 5인

☐ 이집트 사회복지부 장관 기조연설

- 최근의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빈곤층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식
량위기 등이 빈곤층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
의 빈곤경감에 대한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다.
- 사회통합정책은 한계층 및 빈곤층의 후생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 및 건강증진 정책 등은 빈곤경감의 효과적 수단이다. 세계의 인민들
은 생활필수여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
다. 즉, 인간개발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

력의 함양이 그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하는가이다. 이는 특정 당부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정치적 결단 또한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고, 정치일정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 경제개혁 및 발전이 빈곤경감에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 및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발전은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개발에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 세계화는 빈곤층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정보 및 지식은 인간개발의 기초이다. 사회개혁은 경제개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개혁 및 정치발전은 사회개발과 발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무엇을 위한 경제개발과 정치개혁인가?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물가상승은 빈곤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기초생필품 및 식료품의 물가상승의 지표를 잘 개발하여야 한다. 이들 지표는 빈곤층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제기구 및 NGO의 빈곤층경감 테스트 프로그램은 그 실효성과 정통성이 없다. 빈곤층은 그들 자신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은 실험실의 동물이 아니다. 그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고찰 없이 쉽게 빈곤경감프로그램을 논하지 말라. 이는 개별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계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우리라. 어설픈 지식은 필요 없다. 값싼 동정심에 기인한 보조금은 필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빈곤층을 고착시킬 뿐이다.
- 각 개별 개인과 사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무시한 빈곤경감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실패경험은 성공경험 못지않게 중요하다. 필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빈곤경감의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다.

□ Resource Person의 발표내용

<방갈라데시>

- 1960년대의 혁신적 정책개입: 두개의 빈곤경감 모델
 - Comilla Approach: Sub-District
 - Micro Credit
- 행정인프라의 발전,
- 협동조합인프라의 발전: 두 단계로 구성(마을 단위 - 지방 단위. 지방단위는 마을단위의 협동조합을 지원)
- 관개인프라의 개선: 지하수 및 지표수의 효율적 활용. 디수확품줄 도입가능 및 기계영농
- 보조프로그램
 - 농촌여성에게 권한부여
 - ⇒ 결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타 부문으로 확대적용가능하다.
- 그러나 약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
 - 빈자들의 영농심각
 - 신기술 도입과 적용에 문제

<인도>

- 농촌전기, 농촌도로, 안전한 물 확보, 일반교육, 건강문제 등이 농촌빈곤경감 수단이다. 농촌빈곤경감을 위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보조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 고령층 연금
 - 가족혜택(Family Benefit Scheme)
 - 모자혜택(Maternity Benefit Scheme)
 - 빈곤층에 대한 식량보조
 - 고령 및 극빈자들에게 식량보조
 - 빈곤학생 점심제공

○ 향후 정책구현 방안

- (1) 중앙정부권한의 이양 ⇒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빈곤정보를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빈곤경감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2) 정부 및 정책의 투명성

정확한 정보에 뒷받침한 정부정책은 투명성을 일정 담보해준다. 이를 위해 회계에 대한 사회적 감사가 필요하다.

※ 인도의 경우 NGO는 정부의 감독 하에 빈곤경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말레이>

○ 말레이시아의 빈곤경감의 주요정책은 경제발전이었다.

○ 신경제정책의 두 가지 전략

- 인종에 차별없는 빈곤경감
-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 및 발전

○ 빈곤경감의 주요전략

- 농지개발과 재분배: 고무, 오일팜, 코코아 등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시림 개발하여 농지없는 용가들에게 분배(10~14에이커). 그러나 유상분배였다. 비용은 농지, 주택, 과수원 등의 개발비용의 1/4을 정부에게 지불했다. 나아가 유허농지 등을 재배분함으로써 농지이용률 제고. 고무생산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작물로 대체. 다수확품종 입식
- 농촌인프라, 사회 어메니티, 주택개발: 도로네트워크 구축(접근성 제고), 물, 전기 등 기본 어메니티(건강증진), 주택구입에 용자(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함)

○ 즉 농촌지역의 빈곤경감을 위해선 경제성장이 중요함. 그리고 NGO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중요

□ 현장견학

○ 농촌빈곤경감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교육 및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직업훈련센터 건립(JICA 도움). 수공업품 및 목공업품 교육훈련. 훈련비 및 생활비 일부분 지급. 졸업 후 자영업설립시 용자 및 보조금 지급

○ 농촌부업단지

- 바구니, 가방 등 지역부산물을 이용한 농촌부업

○ 개별 가내수공업

- 지역부산물 이용한 수공업. 가격은 하루 품삯으로 계산. 일일노동시간=1달러

- 이집트의 농촌지역은 빈부차가 심함. 대형 트랙터의 기계작업과 동시에 수작업과 농업노동자가 공존하고 있음.
- 이집트 전체의 Gini 계수는 0.55이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각
- 대형 트랙터가 운행되는 지역엔 나일강을 이용한 관개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음,

□ 종합토론

- 종합토론은 3개의 분과토의를 거친 후 진행되었음.

- 그룹 1: 자연자원과 빈곤경감
- 그룹 2: 제도와 빈곤경감
- 그룹 3: 소규모 프로젝트와 대상 그룹

- 그룹 1은 자연자원과 빈곤경감이다. 기실 자연자원으로 인한 빈곤경감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는 동떨어진다. 빈곤경감은 자연자원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자연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 자연자원 그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인간능력이 문제이다. 이는 바로 인간능력개발로 연결된다. 물론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주어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빈곤을 경감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아프리카-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발전 경험은 자연자원과 빈곤경감에 일정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부족하고 빈곤경감을 훌륭하게 수행한 나라로 분류된다. 반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나 국민들은 가난하다.

- 이집트 대사의 평은 예를 들어 한국의 빈곤경감 정책은 무엇인가? 무엇이 한국으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빈곤을 극복하게 만들었는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국의 경험을 청취할 수 있도록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다면 더 좋았으리라.

- 그룹 2는 「제도와 빈곤경감」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분산적 경제발전정책이 빈곤경감에 중요하다.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또한 제고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농촌지역의 인프라구축,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구축 등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위임되어야 한다.

-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여성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경제발전의 경험이다. 방갈라데시의 그라멘 뱅크가 좋은 예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또한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관행과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는 단초로 삼았다.

○ 그룹 3: Small Projects/Target Group

농업발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일마을 일명품” 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마을끼리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규모사업체의 주주끼리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위험 분산효과가 있고, 또한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마을별 성공사례(실패사례도 좋음)는 다른 마을과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AARDO의 역할이 기대된다.

- 물론 소규모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설명 필요. 이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동일하다.

□ <관찰 및 총평>

○ 인적자본 개발이 중요함. 농촌지역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의 인적자산이 중요한데 많은 개발도상국은 불행히도 그러하지 못함.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동일한 문제임

- 예를 들어 엔지니어는 있지만 관개시설 전문가는 없다.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특정지식을 갖고 있는 인적자본의 부족이 개발도상국의 농촌빈곤을 경감하는데 심한 걸림돌로 작용
- 일반적인 지식은 필요 없음. 특정지식과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새마을 운동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내에서 특정지식을 추구하였고 이를 활용/ 확산하였음.

○ 물질적인 빈곤보다 정신적 빈곤이 더욱 중요.

-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중요하고 이를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 나아가 자연환경과 자원은 풍부하다. 이를 빈곤경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정보 및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